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에서 ‘한문지식영역’의 서술에 대한 考察

鄭 順 泳 *

<目 次>

- | | |
|------------------------------|--------------|
| I. 서론 | III. 결론 및 제언 |
| II. ‘한문지식’영역에 대한 서술
내용 분석 | |

<국문 초록>

본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에서 ‘한문지식’ 영역에 대한 서술상의 문제점을 교육과정해설서와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사’의 문법 의미 규정과 범주 설정의 문제, 개사와 접속사구분의 혼란, ‘빈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한 구분 기준의 모호성, ‘단어의 짜임’과 ‘어휘의 유형’에 대한 서술상의 혼돈, ‘문장의 유형’과 ‘글의 서술방식’에 대한 서술상의 혼돈, ‘문장의 수사법’에서 ‘도치’에 대한 설명의 불명확성 등을 보이고 있었다.

한문교과에 대한 관심이 타 교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생각해 볼 때, 교육과정해설서에 따른 교과서 서술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교수자나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漢文 I』 교

* 충남대학교 강사 / 7743jsy@hanmail.net

과서에서 서술상의 문제들을 살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서술에서 再考되어야 할 점과 통일되고 규범적인 한문과 學校文法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교수·학습내용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教授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文法教授에 대한 다양한 教授·學習方法의 개발도 중요하다.

【주제어】 개사, 빈어, 보어, 단어의 짜임, 문장의 유형

I. 서론

漢文教育의 궁극적 목표는 한문문장의 독해와 바른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타 교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漢文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音聲言語가 아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英語나 中國語, 日語 등의 언어를 배우고자 할 경우에는 수백편의 영화나 드라마,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회화나 독해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문의 경우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文字言語도 音聲言語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말과 글속에 한자 어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中·高等學校에서의 한문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해’ 능력에 있으며, 바른 언어생활에 있다.

漢文教育의 목표인 漢文讀解 능력 배양은 우리말과 확연히 다른 文章構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는 文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한문과의 文法에 대한 지식은 다른 어학과목과 달리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 습득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무엇보다

도 중요하며, 교과서 편성지침인 교육과정해설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교과서를 살펴보면 서술상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문법 서술상의 문제점을 다룬 논문들을 살펴보면, 崔相翼은 「現行 高等學校 『漢文(上)』教科書의 問題點 研究」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와 시정되어야 할 오류 등을 제시하였는데,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는 품사 설정범주와 용어설정, 특정 허사의 품사 귀속문제, ‘개사 구조’의 문장성분 설정 등을 말하였으며, 교과서에서 시정되어야 할 오류들로는 문장성분 분석에 대한 오류와 ‘以’의 개사와 접속사 쓰임에 대한 오류, ‘而’의 부사화기능, ‘所’의 수식기능, ‘有’의 행위의 지속기능, ‘者’의 가정의 의미 등을 말하면서 이들 오류사항에 대하여 교과서 예문을 들어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였다.¹⁾ 임중혜는 「漢文教科書 文法用語의 實際」에서 교과서 용어사용 실태를 고찰하면서 한문문법 정립의 필요성과 한자어의 짜임이 어순에 의한 짜임이 아닌 것은 ‘병렬’로 통일할 것과, 목적어와 보어를 ‘빈어’로 통일할 것과 문장형식의 하위분류에서의 용어 통일을 제안하였다.²⁾ 김정흠은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내용 실태 연구」에서 한자어의 짜임에 있어서 교육과정해설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과 병렬관계를 세분화해서 해당하는 한자어를 제시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통일할 것과 문장의 기본구조와 확장구조의 혼돈과 문장형식에 대한 분류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문법통일안 제정을 말하였다.³⁾ 허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제 실태연구」에서 한자어의

-
- 1) 崔相翼, 「現行 高等學校 『漢文(上)』教科書의 問題點 研究」, 『한문교육연구』 7, 한국한문교육학회, 1993.
 - 2) 임중혜, 「漢文教科書 文法用語의 實際」, 『한문교육연구』 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 3) 김정흠,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내용 실태 연구」, 『한자한문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짜임,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문법용어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해설서의 준용여부와 문법문제를 다룬 평가에서의 문제점을 거론 하면서 독해를 위한 문법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필요성, 그리고 문법의 통일성을 제시하였다.⁴⁾ 이상의 논문들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후속 연구논문과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를 통하여 많은 수정과 통일이 되었다.⁵⁾ 그러나 여전히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漢文 I』⁶⁾에서 文法에 관한 서술상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 사용 중인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漢文 I』에서 ‘한문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개사’에 대한 서술상의 문제, ‘빈어’와 ‘보어’의 개념 문제, ‘단어의 짜임’과 ‘어휘의 유형’, ‘문장의 유형’과 ‘글의 서술방식’, ‘문장의 수사법’ 등에서의 서술상의 문제점을 교육과정해설서와 함께 살펴보면서 再考되어야 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한문지식’영역에 대한 서술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漢文 I』에서 ‘한문지식영역’의 文法문제를 ‘개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서술, ‘빈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한 서술, ‘단

4) 허연구,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제 실태연구」, 『한자한문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5) 위에 제시한 논문들의 성과에 대하여 이군선의 「한문과 문법연구의 동향과 과제」(『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6) 현행고등학교 교과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모두 5종이며 필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김인중·조영호·박영숙, 『고등학교 한문 I』, (주) 교학사, 2011.

김용재·류준필·류준경·권오순·김상선·김영선, 『고등학교 한문 I』, 더 텍스트, 2011.

박성규·윤재민·백광호·최승후,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 2011.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고등학교 한문 I』, (주)다락원, 2011.

신표섭·이윤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2011.

어의 짜임’과 ‘어휘의 유형’에 대한 서술, ‘문장의 유형’과 ‘글의 서술방식’ 및 ‘문장의 수사법’에 대한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介詞’의 의미와 기능⁷⁾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介詞’에 관한 서술은 한문지식의 증영역인 ‘어휘영역’의 ‘단어의 갈래’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의 학습요소로 제시되었다.⁸⁾ 이는 문법부분에서 ‘품사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용어의 명칭과 개념 등 타 교과와 보편적 체계에 맞추어 서술되었으며 지난 교육과정에 비하여 품사에 대한 학습내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술상에서 재고되어야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교과서에서 ‘개사’부분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자.

한문지식의 이해

1. 於의 다양한 쓰임

於是 ‘~에게’의 의미로 쓰였으며, 보통 명사류(名詞類)앞에 위치하여 처소·대상·비교·피동 등의 뜻을 나타낸다.

(예) 驕於人 :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다.⁹⁾

위 교과서에서는 개사 ‘於’에 대한 의미기능을 ‘처소·대상·비교·피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문은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개사의 ‘처소·대상·비교·피동’ 등의 의미범주에 대한 설명은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원용한 것인데,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7) 본 절의 내용은 鄭順泳의 「‘介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小考」(『한자한문교육』 3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3.)를 참조.

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47.

9) 신표섭 외, 앞의 책, p.138.

과 같다.

(1) 개사(介詞)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명사류와 어울려 ‘개사+빈어’의 구조를 이루 어, 보통 서술어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의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구실을 한다.¹⁰⁾

교육과정해설서의 개사에 대한 내용은 개사의 정의와 문법의미와 기능을 두루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사의 문법의미범주 규정에서 사실 ‘대상’과 ‘비교’를 동일 범주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사의 문법의미는 해당 개사가 개사의 목적어¹¹⁾로 명사나 명사에 상당하는 單語나 句節 등을 동반하여 중심서술어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는 개사가 ‘**비교의 대상**’을 서술어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1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52.

11)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빈어’를 취소하고 다시 ‘목적어’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개사목적어’라 명명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목적어’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2)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鄭順泳, 앞의 논문, 2013. 참조.

對象이란 행위동작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로, 서술어가 행하는 행위동작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나 사물이다. 이 경우 개사목적어인 대상을 술어의 행위동작에 대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措置對象, 人物對象, 比較對象으로 나눌 수 있다. ‘처치대상’은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직접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술어의 행위동작에 의하여 위치이동이나 상태 등의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수여되는 사람이나 사물, 告知 혹은 訓示 내용 등을 나타낸다. 人物대상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동작에 의해 이동을 겪는 사물을 소유하게 되는 ‘授與대상’과 행위동작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대상인 ‘受益대상’, 質問이나 要請, 祭祀 등의 행위동작을 누구를 향해

‘피동’이라는 의미는 개사가 서술어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용어가 아니다. 중심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인 주어에 대한 의미이다. 被動文에서 개사의 목적어는 중심서술어의 행위동작을 하는 ‘행위자’이다. 주어는 개사가 동반한 ‘행위자’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다. 해설서와 교과서 모두 의미범주에 있어서 일정한 체계나 범주 없이 나열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사에 대한 정의와 정의에 따른 문법 의미 범주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개사의 문법 의미 유형에 관한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㉑ 내용과악

(7) 王乃大奇之 盡以所著授之

왕세기가 이에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자신이) 지은 것을 모두 전수해 주었다.[서술문]

*이는 명사류 앞에서 **자료**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¹³⁾

개사의 문법 의미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介詞는 문장 가운데서 일종의 관계를 표시하는 虛詞로 개사 뒤의 개사목적어가 서술어로 쓰인 행위동작과 관련하여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의 개사 ‘以’의 문법 의미는 ‘授’라는 행위동작의 ‘조치 또는 처치의 대상’을 이끌고 있다. ‘所著’는 수여할 대상인 물건인 처리하여야 할 ‘처치대상’이다. 따라서 ‘대상’의 문법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어휘가 지니고 있는 문장 속에서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사의 의미 유형은 단어의 개별 의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의미를 뜻한다. 다음은 개사와 접속사의 두 가지 품사의 속성을 가진 허사에 대한 서술내용을 살펴보자.

시행하는 ‘指向대상’ 등은 모두 서술어로 나타내는 행위동작을 하는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比較대상은 개사의 목적어로 그 문장의 주어와 상태나 정도의 비교가 되는 대상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13) 송재소 외, 앞의 책, p.66.

본문이해학습

就其所自得 以論其所自鳴 規其微疵 而約於至純. 1 그가 스스로 얻은 것에 의거하여 그가 스스로 소리 낸 것[발표한 작품]을 평론하며, 그의 자잘한 결점들을 바로잡아 주어서 (이런 결점들이 없는) 지극히 순수한 경지에서 (그의 시 세계의 결말이)맺도록 하다.

본문풀이

就 : ~에 따라, ~에 의거하여, 개사¹⁴⁾

위의 문장을 통사적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就 其所自得 以 論 其所自鳴 規 其微疵 而 約 於至純
서술어 목적어 접속사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접속사 서술어 보어

즉 여기서 ‘就’는 개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것이다. 만약 앞의 ‘就’가 개사로 쓰였으면 ‘就’와 개사목적어 ‘其所自得’의 전후에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 서술어가 없다. 이것은 ‘就’가 개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就’는 동사로 ‘좃다’, ‘따르다’의 의미로 ‘~를 좃아서 ~를 평론하며, ~를 바로 잡아서 ~에 맺는다’이다. 여기서 ‘以’는 앞뒤에 동사 ‘就’와 ‘論’을 일의 순서에 대한 선후로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이며,¹⁵⁾ 뒤에서는 접속사 ‘而’를 써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는 개사의 문법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품사의 설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②내용과약

(2) 賣牛三豕三 以買九羊 錢適足

소 세 마리와 돼지 세 마리를 판 것으로써 아홉 마리의 양을 사니 돈이 알맞다.¹⁶⁾

14) 박성규 외, 앞의 책, p.224.

15) 王力, 『古漢語通論』, 中外出版社, 1976, p.75, “連詞以字也是用來連接兩個動詞或動詞性的詞組的 它表示時間上一先一後的兩種行爲的聯系”

16) 송재소 외, 앞의 책, p.94.

㉓ 내용과약

(2) 爲角力之戲 以賭勝負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해서 승부를 겨룬다. 以[접속사]¹⁷⁾

위 교과서는 같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첫 번째 예문은 ‘以’의 품사를 개사로 분석하여 해석하고 있다. ‘賣牛三豕三 以買九羊’을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賣동사(서술어) + 牛명사(수식어) + 三수사(목적어) + 豕명사(수식어) + 三수사(목적어) + 以(접속사) + 買동사(서술어) + 九수사(수식어) + 羊명사(목적어)’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以’는 ‘~을 팔아서 ~을 사다’의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여 일의 시간적 선후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석은 ‘~로써 ~이 있다’로 개사의 기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교과서에서 위와 동일한 형태소 분석이 되는 ‘以’에 대하여 ‘접속사’로 분석하여 ‘~하여’로 해석하고 있다. 진술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허사의 쓰임 - 以

(1)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시간 등의 뜻을 나타낸다.

責眞山水以似畫[진짜 산수에게 요구하기를 그림 같음으로써 하다]

(2)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한다.

作文以記之[글을 지어서 그것을 기록하다]¹⁸⁾

(1)과 (2) 모두 ‘以’가 접속사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1)은 개사로 분석하고 있다. 접속사 ‘以’는 전후에 쓰인 서술어 ‘責’과 ‘似’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다. 허사에 대한 문법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품사설정도 잘못되었고 이에 따라 문장 해석에 있어서 부드럽지 못하고 정확한 의

17) 송재소 외, 위의 책, p.116.

18) 박성규 외, 앞의 책, p.69.

미전달이 부족하다. ‘진짜 실물 같은 산수를 원하니(하여) 그림 같다’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2)는 (1)과 달리 ‘作’과 ‘記’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2. ‘빈어’와 ‘보어’의 개념

한문과의 2007개정 교육과정은 학교문법 차원에서 문법범위나 내용, 용어의 명칭과 개념 등이 타 교과와 보편적 체계에 맞추어져 서술되었으며, 용어의 명칭도 한문의 어법적 특징을 잘 반영하여 한문과 학교문법 측면에서 한 획을 그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목적어’가 ‘빈어’로 용어가 바뀌고 그 개념도 달리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생소한 문법용어를 받아들일 교사나 학습자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목적어’의 용어로 바뀌고 그 개념도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과 2, 3학년은 같은 구조의 ‘登山’이라는 단어를 2, 3학년에서는 ‘술빈관계’의 짜임으로, 1학년에서는 ‘술보관계’의 짜임으로 배우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교사는 ‘有情’이라는 단어의 ‘술목(술빈)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워진 실정이 되었으며, 평가에서도 제외시키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국가차원에서 일정한 규범과 일관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아쉬운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한문교과에 대한 관심이 타 교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생각해 볼 때, 타 교과에서의 보어의 개념을 살펴 일반 언어학적 관점을 따르는 것이 이해도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교과서에서의 목적어[빈어]와 보어에 관한 서술에 대하여 살펴보자.

④ 어휘의 세계 | 단어의 짜임 - 술보관계

- 博識(박식): 아는 것이 많음. ㉠ 두루 박식하다.
- 應募(응모): 모집에 응함. ㉡ 신춘문예에 응모하다.

- 臨海(임해): 바다에 가까이 있음. 예)임해수련원
- 難航(난항): 항해하기가 어려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 예)난항을 겪다.¹⁹⁾

위 교과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에 의하여 편찬된 것이다.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술빈 관계(述賓關係)

서술어와 빈어(賓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고, 빈어는 그 대상이 된다. 빈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빈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술빈 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빈어가 우리말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말의 목적어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목적어’라는 용어대신 ‘빈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보기

- 騎馬 [말을 탄] (‘馬’가 ‘騎’의 목적을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 就職 [직업에 나아감, 곧 직업을 얻음] (‘職’은 ‘就’의 목적지를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 有産 [재산이 있음] (‘産’이 ‘有’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빈어로 봄)

(3) 술보 관계(述補關係)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보 관계’의 단어도 그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

보기

- 難航 [항해하기가 어려움]
- 多濕 [습기가 많음]
- 下船 [배에서 내려옴]²⁰⁾

19) 김언중 외, 앞의 책, p.33.
 2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46.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위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應募’와 ‘臨海’는 ‘술빈관계’의 짜임이 된다. ‘募’와 ‘海’는 ‘목적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위 교과서는 2007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²¹⁾ 이는 교육과정해설서의 ‘빈어’와 ‘보어’의 개념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설득력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정해설서에서 ‘就職’과 ‘下船’에서 ‘職’과 ‘船’은 모두 ‘就’와 ‘下’의 행위동작의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인데 ‘職’은 ‘목적지’이므로 빈어로, ‘船’은 ‘목적지’가 아니어서 보어로 본 것이다.²²⁾

그런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빈어’의 용어를 취소하고 다시 ‘목적어’의 용어를 쓰고, 그 개념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과 같이 하면서 다만 ‘有’ 뒤의 성분만을 ‘목적어’로 보고 있다. ‘목적어’ 용어의 사용은 학교현장과 학계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술목관계에서 서술어와 목적어의 개념을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술보관계에서 서술어와 보어의 개념은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준다.’²³⁾라고 하여, 술목관계의 설명에서 2007개정교육과정의 ‘존재’만 삭제하였다. 이유에 대하여 ‘在 +NP’ 구조도 술목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²⁴⁾ 즉 술목관계의 분석은 7차 교육과정과 같은데, ‘有’ 뒤의 성분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에서 ‘보어’로 보던 것을 2009교육과정에서는 ‘목적어’로 보자는 것이다.

21) 김언중 외, 앞의 책, p.75.에서의 ‘주술보 구조’의 문장구조에서도 7차 교육과정해설서를 따르고 있다.

22) 鄭順泳,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참고.

2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p.11.

24) 김성중,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어휘’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p.179.

여기서 학생들에게 술목관계와 술보관계를 설명할 때 ‘존재’와 ‘상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며, 또 보통 우리가 존재동사라고 하면, ‘有’와 ‘在’를 함께 거론하는데 ‘有’ 뒤의 성분은 모두 ‘목적어’로 보고 ‘在’ 뒤의 성분은 ‘보어’로 보는 것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따른다. 아무리 한문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존재동사 ‘有’ 뒤의 성분은 ‘목적어’로, 존재동사 ‘在’ 뒤의 성분은 ‘보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게 됐다. 또한 학생들이 국어문법을 배울 때 국어의 ‘보어’ 개념과 달라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필자도 일반 언어학적 관점과 달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제시가 어려워 기피하고 있으며, 평가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교가 많아 중국어와 한문을 함께 배우는 학생이 많다. 현대한어인 중국어는 고대한어[한문]로부터 변화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한문과에서의 보어의 개념규정은 중국의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에서의 보어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3. ‘단어의 짜임’과 ‘어휘의 유형’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자어’의 용어가 ‘단어’ 또는 ‘어휘’의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한문지식의 중영역으로 ‘어휘영역’이 설정되어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의 학습요소가 제시되었다.²⁵⁾ 이는 문법부분에서 ‘형태론’과 ‘어휘의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용어의 명칭과 개념 등 타 교과와 보편적 체계에 맞추어 서술되었으며, 지난 교육과정에 비하여 문법측면에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에 서술된 어휘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16.

2. 문장의 풀이

男女, 歌舞, 左右 → ‘병렬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로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져 있다.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병렬관계 禍↔福, 表↔裏	반의어 需要↔供給
서로 비슷한 의미의 병렬관계 飢≒饑, 光≒輝, 需≒要, 災≒殃	유의어 迷宮≒五里霧中

26)

위의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문장의 풀이’에서 단어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렬관계의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의 해설서에 따라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분’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첨가되면 좋을 듯하다. 이는 문법적 의미가 같은 성분 즉 품사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병렬관계’는 ‘형태론’에 대한 문법요소로 단어내부 관계를 분석하는 ‘단어의 짜임’ 또는 ‘단어 형성법’으로 단순어와 합성어에서 ‘합성어’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의어, 유의어는 ‘어휘의미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어 간의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이다.²⁷⁾ 교육과정해설서에서는 ‘어휘의 유형’²⁸⁾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단어내의 짜임’ 관계에 따른 분류와 ‘단어 간의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를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아래 교과서에서도 보인다.

④어휘의 세계 | 단어의 짜임 - 반의어(I)

- 騷亂(소란)↔靜肅(정숙) • 飽滿(포만)↔虛飢(허기) • 遠洋(원양)↔沿海(연해)
- 災殃(재앙)↔祝福(축복) • 慎重(신중)↔輕率(경솔) • 薄待(박대)↔厚待(후대)²⁹⁾

26) 김용재 외, 앞의 책, p.46.

27) 이관규, 『개정판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5, p.324. 참조.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56.

④ 어휘의 세계 | 단어의 짜임 - 반의어(II)

- 普遍(보편)↔特殊(특수) • 奴隸(노예)↔上典(상진) • 將帥(장수)↔兵卒(병졸)
- 忘却(망각)↔記憶(기억) • 和睦(화목)↔不和(불화) • 含蓄(함축)↔明示(명시)³⁰⁾

④ 어휘의 세계 | 어휘의 유형 - 유의어(I)

- 驅迫(구박)≒賤待(천대) • 凝視(응시)≒注視(주시) • 庶民(서민)≒凡民(범민)
- 封鎖(봉쇄)≒閉鎖(폐쇄) • 尋常(심상)≒平凡(평범) • 斜陽(사양)≒退潮(퇴조)³¹⁾

④ 어휘의 세계 | 어휘의 유형 - 유의어(II)

- 謁見(알현)≒拜謁(배알) • 猶豫(유예)≒延期(연기) • 優秀(우수)≒卓越(탁월)
- 巷間(항간)≒民間(민간) • 企圖(기도)≒圖謀(도모) • 思索(사색)≒冥想(명상)³²⁾

④ 어휘의 세계 | 동음이의어(I) - 감상

- 感想(감상): 느낌이나 생각. ㉠독서감상문.
- 感傷(감상):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가을은 감상의 계절
- 鑑賞(감상):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음악감상³³⁾

④ 어휘의 세계 | 음이 변한 말(I)

- 과녁←貫革(관혁): 갑옷을 표적삼아 활을 쏘던 데서, 목표물을 비유. ㉣과녁에 명중하다³⁴⁾

위의 교과서는 ‘어휘의 세계’라는 항목으로 어휘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단어의 짜임’에서 ‘반의어’를 제시하고 ‘어휘의 유형’에서는 ‘유의어’를 제시하고 있다. ‘단어 형성법’ 또는 ‘단어종류’에서 ‘합성어’의 ‘단어내부관계의 짜임’ 또는 단어의 구조와 ‘단어 간의 의미관계’인 교육과정해설서의 ‘어휘의 유형’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제시되었다.

‘단어의 짜임’이라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상의 법칙이나 단어내

29) 김언중 외, 앞의 책, p.71.

30) 김언중 외, 앞의 책, p.77.

31) 김언중 외, 위의 책, p.83.

32) 김언중 외, 위의 책, p.93.

33) 김언중 외, 위의 책, p.105.

34) 김언중 외, 위의 책, p.143.

부 관계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형태론’에 속하는 문법요소로 ‘단어의 종류’ 또는 ‘단어 형성법’에서 ‘합성어’의 단어내부의 관계가 주술관계, 술목관계[술빈관계], 술보관계, 수식관계, 병렬관계를 말한다. 반의어·유사어·동음이의어·다의어 등은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에 따른 구분으로 ‘어휘의미론’에 해당하는 문법요소이다. 교육과정해설서에서는 ‘어휘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에서 중요한 매개체다. 특히 독해의 편리성을 위한 한문문법에 관한 지식은 여타의 어학과목과는 달리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서 습득된다는 점에서 한문교과서의 정확한 서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문장의 유형’과 ‘글의 서술방식’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형식’이 ‘문장의 유형’으로 용어가 바뀌었으며, ‘문장의 수사법’이 새로운 학습요소로 제시되었다. 문장의 유형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判斷文, 敘述文, 描寫文으로 나누었으며, ‘화자가 나타내는 語氣’를 기준으로 平敘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문’ 영역의 ‘이해’ 영역에서 한문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으로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른 議論的인 서술방식, 描寫的 서술방식, 敘事的 서술방식, 抒情的 서술방식을 말하고 있다.³⁵⁾ 이를 반영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문따라잡기 | 문장의 수사법 - 열거, 특수한 표현방식 - 묘사적 서술

열거는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 人物山水仙佛花果禽蟲魚蟹: 인물·산수·신선과 부처·꽃과 과일·새와 벌레·물고기와 게

3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p.30, p.62.

묘사적 서술이란 사회의 풍속이나 인정을 기술하는 방식이다.

- 人莫不拍掌叫奇:사람들이 손뼉 치며 기이하다 부르짖지 않음이 없었다.³⁶⁾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한 표현 방식으로 묘사적인 서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해설서에 따라 예문을 분석해보면 ‘문장의 유형’에서 서술어의 성질에 따른 문장 분류의 서술문으로 볼 수 있다. 특수한 표현 방식의 하나로 제시한 묘사적인 서술방식이란 문체 기법으로 즉 글의 총체적인 서술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⁷⁾

한문에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나눈 이유는 영어와 달리 한문에서는 서술어로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나 명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는 하나의 단위문장에서 서술어의 품사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名詞敘述語는 判斷文을³⁸⁾, 動詞敘述語는 敘事文[敘述文]을,³⁹⁾ 形容詞敘述語는 描寫文을 이룬다.⁴⁰⁾ 글의 종류와 혼용의 우려가 있으니 동사서술어문, 형용사서술어문, 명사서술어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2. 문장의 유형

(1)판단문: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을 진술하는 문장으로 한 사물의 성질, 특징, 범위 등을 판단하고 설명한다.

36) 김언중 외, 앞의 책, p.147.

37) 金鍾喆, 「한문교육에서 ‘문체’의 개념 정의와 분류에 대한 탐구」, 『東方漢文學』 51, 동방한문학회, 2012. p.248. 참조.

38)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pp.104-105, “判斷句是用來斷定人或事物的名稱 類別或屬性的無論在文言 或是現代漢語裏 大都以名詞做謂語的主要成分”

39) 劉景農, 위의 책, pp.104-105, “敘述句是用來 述說人或事物的行動 變化的 無論在文言 或是現代漢語裏 這類句大都以動詞做謂語的主要成分”

40) 劉景農, 위의 책, pp.104-105, “描寫句是用來描寫人或 事物的性質 狀態的 無論文言或是現代漢語裏 這類句大都 以形容詞 做謂語的主要成分”

- 寒食墓祭, 自唐而始也: 한식의 묘제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 (2)의문문: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 計錢幾何: 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⁴¹⁾

위의 교과서의 서술도 문장의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분류기준이 다른 판단문과 의문문을 아무런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나열하여 문장유형의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분명히 서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단문에 대한 설명에서도 ‘사물을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내용이라는 서술은 ‘서사적인 표현’의 설명이며, ‘사물의 성질, 특징’이라는 내용이라는 서술은 ‘묘사적인 표현’의 설명으로 보인다. 명제에 따른 불명확한 서술내용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문장의 수사’에서 도치에 관한 내용이다.

문장의 수사법 - 도치

뜻을 돌출시키고 어기를 순하게 하며 성음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반적인 언어순서를 바꾸어 놓는 방법이다.

㉞ 惜乎! 吾讀書, 本期十年, 今七年矣⁴²⁾

위의 내용은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서술내용의 이해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뜻을 돌출’시킨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어기를 순하게’ 하기 보다는 ‘어기의 변화나 어기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 같으며, ‘성음을 조화롭게’하기 위한다는 것은 ‘성음 즉 평측에 맞게 하기 위한 도치’인 듯하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수준에 맞추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교

41) 김용재 외, 앞의 책, p.56. ‘판단문은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을 진술하는 문장으로 한 사물의 성질, 특징, 範圍 등을 판단하고 설명한다.’에서 범위를 한문으로 표기하여 고등학교 900자에 포함시켜 익히게 한 것 같은데 다소 무리가 있다.

42) 박성규 외, 앞의 책, p.141.

과서는 교육과정해설서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교육과정해설서의 설명은 교수자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설명으로 명시적으로 서술되어야 하겠다.

Ⅲ. 결론 및 제언

본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漢文Ⅰ』 교과서에서 ‘한문지식’ 영역에 대한 서술상의 문제점을 교육과정해설서와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사’의 문법 의미 규정과 범주 설정의 문제, 개사와 접속사구분의 혼란, ‘빈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한 구분기준의 모호성, ‘단어의 짜임’과 ‘어휘의 유형’에 대한 서술상의 혼돈, ‘문장의 유형’과 ‘글의 서술방식’에 대한 서술상의 혼돈, ‘문장의 수사법’에서 ‘도치’에 대한 설명의 불명확성 등을 보이고 있었다.

한문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의 중요한 매개체로 한문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漢文教育의 목표인 漢文讀解 능력배양은 우리말과 확연히 다른 文章構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는 文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漢文科에서의 文法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 습득된다. 그러므로 한문교과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과서 편성지침인 교육과정해설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해설서는 한문과 교수·학습내용의 방향과 규범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해설서의 내용의 시비를 떠나 일선교사나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수능시험이나 학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한문교과에 대한 관심이 타 교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생각해 볼 때, 교육과정해설서에 따른 교과서 서술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교수자나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

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되고 규범적인 한문과의 學校文法制定을 제언하고자 하며, 내용서술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교수·학습내용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教授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文法教授에 대한 다양한 教授·學習方法의 개발도 시급하다. 아울러 본 논문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될 교과서와 다양한 교수법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參考 文獻>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김언중·조영호·박영숙, 『고등학교 한문 I』, (주) 교학사, 2011.
- 김용재·류준필·류준경·권오순·김상선·김영선, 『고등학교 한문 I』, 더 텍스트, 2011.
- 박성규·윤재민·백광호·최승후,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 2011.
-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고등학교 한문 I』, (주)다락원, 2011.
- 신표섭·이윤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2011.
- 김성중,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어휘’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 金鍾喆, 「한문교육에서 ‘문체’의 개념 정의와 분류에 대한 탐구」, 『東方漢文學』 51, 동방한문학회, 2012.
- 심정흠,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내용 실태 연구」, 『한자한문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이관규, 『개정판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5.
- 이군선, 「한문과 문법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임종혜, 「漢文教科書 文法用語의 實際」, 『한문교육연구』 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鄭順泳,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 「‘介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小考」, 『한자한문교육』 3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3.
- 崔相翼, 「現行 高等學校 『漢文(上)教科書의 問題點 研究』」, 『한문교육연구』 7, 한국한문교육학회, 1993.
- 허연구,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제 실태연구」, 『한자한문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王力, 『古漢語通論』, 中外出版社, 1976.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Abstract

*A study on description for 'Parts of Classical Chinese Knowledge' in the high school
'Chinese I' textbook by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7'
/ Jung Soon Young**

This paper studied problems for the Preposition present in high school 'Chinese I' textbook by the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2007.

In this results, its textbook carried out educational goal of Chinese on site schools through the activities of teaching and learning, so, enhancement on ability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must be proceeded to understand on structure of sentences. Also, the knowledge of Chinese mainly obtained through the textbook, therefore it's important and the educational curriculum is more important.

So, in this paper, it proposed contents of review in descriptive problems present 'The Classical Chinese I' and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Chinese, but it depends on method of teach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Therefore, the teaching and learning on structure of sentences need to develop method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Key words】 Preposition, Object, Complement, Structure of Words, Type of Sentences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1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s / 7743jsy@hanmail.net